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October 2017



다른 목적의 훈련

re·pur·pose rē'pərpəs/ 새로운 목적이나 용도 변경을 부여하는

케니(Kenny)씨와 아내 캐서린 (Catherine)씨는 미국에서 법률 집행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조에 인터네셔널(Zoe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이들은 태국을 방문하여 조에(Zoe)의 중요한 사역에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조에 단체의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신 매매된 어린이들을 구출해내는 것’에 동감했습니다.

케니씨와 캐서린씨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낳은 두 명의 딸들(현재 3학년과 6학년)과 입양한 4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치앙마이로 비전트립을 갈 때 자녀 교육의 옵션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학교라는 그레이스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국제학교를 방문하고 이들은 태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도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레이스에서 성경중심의 통합교육과 학교 생활을 통해 배우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케니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케니씨와 캐서린씨는 치앙마이로 옮길 계획을 추진했고 2015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을 역임했던 케니 선교사의 이력은 조에(Zoe)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국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처하도록 그의 훈련과 경험을 재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케니 선교사의 노하우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으며 “태국에서 법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인 케니선교사는 종종 사람들의 최악의 상황을 보았고 그들의 행동과 관련된 어둠의 세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경찰관 경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을 자신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케니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 동기 부여도 될 것 입니다. “케니선교사와 캐서린 선교사는 케니선교사의 훈련과 공동 생활을 통해 태국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레이스에서 성경중심의 통합교육과 학교 생활을 통해 배우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www.gisthailand.org



Grace International School exists to enable international Christian workers to remain in their field of service by providing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their children.